

▶1면에서 이어짐

행복기숙사가 가진 문제는 ‘사용승인’인 데 반해 대자보는 ‘입주허가’와 ‘사용승인’이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다. 사용승인은 현행 「건축법」 제22조 3항에 근거한 절차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의 소유주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 박원규(사학 2013) 씨는 “전달성을 고려해 대자보를 읽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학교가 대자보 표현상 입주허가, 즉 사용승인 없이 학생들을 입주시켰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행복기숙사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17년 8월 24일 다음 날인 25일부터 학생입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추가로 2년의 연장을 받은 상태다. 총학이 공개한 2017년 8월 21일 제22차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안건지에 따르면 총학이 사용승인 지연 문제를 전달받은 시점은 8월 16일, 입주 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 씨는 “구청의 사용승인이 불투명함을 인지한 시점이라도 입주 예정인 학생들에게 이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제22차 중운위 안전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학교와 당시 총학은 2017년 8월 16일 사용승인 문제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학교가 시위를 청탁했다는 대자보 주장에 대해 이 과장은 “당시 학교는 오히려 구청을 자극할 것을 염려해 과격한 대응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차 대자보에서 ‘비공개 밀실회의 문건’ 중 ‘구성원(학생)들의 단독적인 구청 의의제기, 민원, 주민 마찰 등에 대한 사전협의의 등’이라는 문구를 지적하기도 했다. SPACE21 사업추진단 건설사업지원팀 김태우 계장은 “학생들의 단독행동으로 구청과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이 없도록 학생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의 대자보 이후 개인 명의의 대자보를 걸고 사안을 설명한 제49대 총학 김혜영(아동가족학 2012) 전 부회장은 “경실련 대자보가 제시한 ‘내부고발’ 문건은 8월 16일 학교와의 면담에서 참고자료로 제공받은 것이다”라며 “당시 학교 측은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테니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지만 총학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계장은 학교가 학생 안전을 경시했다  
는 대자보의 주장에 대해서 역시 “행복기  
숙사 건물 자체에는 안전 문제가 없다”면서  
“만일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청에서  
임시사용승인도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  
고 말했다.

##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역대 최고 6위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지난 29일 발표된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평가에서 우리학교가 6위를 차지했다. 교수 연구 지원금 확충, 유학생 유치, 교원 수 증가를 높게 평가받아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위에 비해 4순위 상승했으며, 현장실습이나 창업교육 등 학생 교육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등 6개 계열 중 4개 이상을 가진 대학 57곳을 대상으로 했다. 특정 계열만 보유한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등의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종합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 지표는 '교수 연구' 부분의 10개 지표가 총합 100점, '교육 여건' 부분의 12개 지표가 총합 100점, '학생 교육 및 성과' 부분의 6개 지표가 총합 70점, '평판망'도 부분 4개 지표가 총합 30점으로 구성

됐다. 4개 부문에 걸쳐 32개 지표에 의한 평가는 총 3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교수 연구 부문 중 국제 논문단 피인용 지표에서 우리학교는 1.05점으로 7위에 올랐다. 또한 교수 연구 지원금 확충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외연구, 자체연구나 국내논문 게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교내 남사 교수 1인당 연구비는 약 1,372만 원으로 10위이다.

학생 교육 및 성과 부문의 지표인 외국인 학생 비율은 11.2%로 4위를 기록했다. 또한 서울 소재 사립대학 중 교수 법정 확보율을 100% 이상 달성하며 교수 확보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판도 부문은 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550명, 고교 교사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교사가 입학을 추천하는 대학에서 각각 8.10점으로, 7.28점으로 9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교육 여건 부문에서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

순위	대학명
1	서울대
2	성균관대
3	한양대(서울)
4	고려대(서울) 연세대(서울)
6	경희대
7	서강대
8	이화여대
9	한양대(ERICA)
10	중앙대

비, 세입 대비 기부금 비율, 기숙사 수용률 지표 모두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학교 교육 및 성과 부문에서 순수 취업률, 현장실습참여비율 또한 10위권 밖이었다. 유지취업률은 1.034점으로 9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문병

원 팀장은 “우리학교 위상을 견인한 부문은 학생교육 및 성과 부문이 가장 크다. 창업교육비율과 현장실습참여비율, 그리고 유지 취업률\* 지표에서 전년대비 2점 이상 가까이 점수 상승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교육여건, 교수 연구 부문의 평가 점수가 의미 있다”며 “비록 교수 연구 부문의 점수는 하락했지만 대학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은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로 'LINC+사업 선정에 따른 창업교육센터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독박', '학생지원처와 취업진로처 등이 미래혁신원으로 통합'과 같은 제도적 운영이 학생들에게 창업교육, 현장실습을 더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유지 취업률=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한 직장에서 근무하는지 조사한 취업률 지표

## 유학생 위한 TF 구성, 내실있는 국제화 위한 걸음 시작

강래완 기자 [krw97@khu.ac.kr](mailto:krw97@khu.ac.kr)  
박소영 기자 [notold@khu.ac.kr](mailto:notold@khu.ac.kr)

【국제】 일이 갈수록 우리학교의 국제적 위상과 각종 대외 평가 국제화 수치는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국제화 지표는 유학생이다. 이러한 유학생을 위해 양 캠퍼스에서 ‘외국인유학생 관리제도 개선 TF’와 ‘외국인 유학생 교육수월성 제고 TF’가 구성됐다.

우리학교는 전국대학 중 유학생 수 1위, 유학생 비율 2위, 유학생 국제 다양성 2위, 교환학생 파견 2위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1,711명, 2016년에는 2,071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2,317명, 올해는 2,770명이다. 이는 학위과정에 한정한 수치다. 여기에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 연수과정 학생 수까지 더한다면 올해 우리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4,626명에 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학교는 유학생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외국인유학생 관리제도 개선 TF'와 지난해 8월 '외국인 유학생 교육 수월성 제고 TF'를 구성했다.

재정예산처 예산팀 주관으로 만들어진

‘외국인유학생 관리제도 개선 TF’는 각 단과대 행정실 관계자, 외국인 지원팀, 서울캠퍼스(서울캠) 유학생회 비대위원장 및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 사무처장으로 구성된 학생 대표로 구성됐다. 설립 취지는 외국인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교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 인상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에 의해 추가된 예산들을 각 단과대에 배정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등록금 인상 지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며 해당 내용을 단과대에 안내해 예산요구를 받아 단과대에서 유학생 관련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과대 유학생 대표와 학생대표회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 수월성 제고 TF’는 유학생들이 교육을 보다 잘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TF는 양 캠퍼스의 특성상 교육 수월성 제고

TF와 달리 캠퍼스 별로 운영된다. 국제캠퍼스의 경우 지난 8월에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교육 수월성 제고 TF 위원장은 강근 국제캠퍼스 부총장이며, 부위원장장은 오형나 국제교류처장이다. TF 위원들은 각 단과대별 추천을 받은 교수들과 국제교류처 직원들로 구성됐다. 교육 수월성 제고 TF는 필요시 외국인학생 및 국내 학생회 등 학생위원을 추가할 것을 고려 중이다.

국제점 교육 수월성 제고 TF는 지난 10월 1일과 22일 두 번의 회의를 열었다. 두 번의 회의에서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와 외국인학생들을 관리, 운영, 점검하기 위한 통합행정체계 확립을 논의했다. 또한 외국인학생의 학사관리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타 대학 외국인학생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입학제도 및 특성학과 편중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국제점 교육 수월성 제고 TF는 올해 12월까지 운영되어 내년 2월까지 결과보고를 끝낼 예정이다.

국제교류처 서경아 팀장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국제화지수도 중요하지만 많은 유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국제화도 중요하다”며 “공부하러 타국까지 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질 좋은

는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측면에서도 학생을 도와줄 대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예산처 예산팀 이승민 계장은 "매년 학생들이 원하는 이슈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유학생 지원 방법이 무엇일지 학생들과 고민하고, 행정 라인에서 같이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한다. 중국에서 온 방방(태권도학 2017) 씨는 “학교에서 유학생을 위한 위원회를 만든 줄도 몰랐다”며 “위원회가 공부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 수월성 제고 TF의 구성 위원인 김종수(한국어학) 교수는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 활발히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학교에서 만든 위원회의 결실이 교육환경에 적용된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유학생의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Dance

# 2018 무용학부 창작공연



**■일시** | 2018.11.13(Tue) / 15(Thu)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후원** | 무용학부 50대 학생회, 문화아이템팩토리센터



## 제10회 경희대학교 스포츠마케팅세미나

### 스포츠산업의 미래, e스포츠에서 답을 찾다.

경희대학교 스포츠마케팅학회  
DREPOS

Speaker:



**Lee Seung-yong**  
 블리자드 코리아  
 오버워치 e스포츠 팀장



**Oh Ji-hwan**  
 e스포츠 에이전트사  
 '이엘프로스포츠' 대표

Supporter:



**주최** | 경희대학교 · 우석대학교 · 드레포스  
**주관**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경희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원

**Date.** 2018.11.10. Sat.  
**Time.** 13:00~17:00  
**Place.**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 지하 세미나실

**Contact.** facebook\_ "드레포스"  
 플러스친구\_ "드레포스"

참가신청 QR코드



# 온전한 앞이란 무엇일까

제44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생명: 아담과 이매넌케스] [나쁜 생명, 인간]  
 [과학과 예술의 만남] [삶과 죽음] [공부 이야기]

**강연:** 장화익 교수 (후마니타스 콜리지)  
**일시:** 2018.11.21(수) 오후3시  
**장소:**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내용:** 강연, 도서증정행사, 사인회  
**문의:** 중앙도서관 학습연구지원팀 02)961-0078



